

보령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마무리, 시 업무 추진 상황 살펴

- 3일간 집행부 41개 부서 주요업무 보고 청취, 제2회 추경 예산안 등 안건 처리
- 성태용, 서경옥, 김충호, 조장현 의원 5분 발언…시민 위한 목소리 빛나
- 박상모 의장, “한해 결실 맺는 시기, 사업들 원활한 마무리에 힘 모을 것”

보령시의회(의장 박상모)가 지난 8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5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 3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3일에 걸쳐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했다.



▲ 주요업무보고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의회는 제5차 본회의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3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보령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30건은 원안가결 했으며, ‘보령시 침수방지 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수정의결 했다.

1일부터 5일까지는 집행부 41개 부서로부터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의원들은 부서별 보고를 통해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중점과제를 비롯해 민선 8기 공약 사항 이행 현황 등을 두루 살폈으며, 보완 발전 방안을 제안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이번 회기에 새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5인으로 위원장에 성태용, 부위원장에 김재관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이정근, 백영창, 김정훈 의원을 위원으로 1년간 활동하게 된다.

예결위에서는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심사 했으며, 최종 의결된 예산 규모는 총 1조 2,153억 원으로 종전 예산 대비 843억 원이 증가했다.

시민들을 위한 의원들의 5분 발언도 활발했다. 1차 본회의에서는 성태용, 서경옥 의원이, 5차 본회의에서는 김충호, 조장현 의원이 각각 발언했다.



▲ 성태용 의원



▲ 서경옥 의원



▲ 김충호 의원



▲ 조장현 의원

성태용 의원은 ‘해상풍력, 에너지그린도시 보령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육성’을 주제로 발언하면서 ‘지역과 상생하고 수산업과 공존하는 사업 추진’, ‘미래지향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보령 발전 견인’, ‘중장기적인 해양 관리계획 수립’의 3가지 추진 모델을 제안했다.

서경옥 의원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확대 정책 필요’를 주제로 발언했다. 서 의원은 “인류 절반이 쓰는 생리용품은 복지 차원이 아니라 여성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이자 건강권”이라며, “집행부와 함께 지원 근거 마련 등 지원정책 확대를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충호 의원은 ‘기상이변에 선제 대응하는 보령시 재난 대책 시행’을 주제로 발언에 나서, ‘하천 시설 등 설계 시 100년 이상의 빈도 재해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각종 소하천 정비를 조기에 추진할 것’과 ‘독거노인 주택에 에어컨과 가정용 태양광 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조장현 의원은 ‘반값 농자재 지원 촉구’를 주제로 발언하면서 “농사에 사용되는 비료, 농약, 종자비 등 영농자재 전품목에 대해 반값 지원을 해 농가의 시름을 나누고, 농촌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 박상모 의장



▲ 제253회 임시회 폐회

박상모 의장은 “이번 회기를 통해 올해 계획한 시정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찾을 수 있었다”며,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한해 결실을 맺는 시기가 온 것처럼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